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출제기준표(인문계열 B형)

## 출제 의도

본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과 관련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출제하였다.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함양된 독서 능력과 글쓰기, 비판적 사고 능력과 현대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고려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문항 1>은 (가)와 (나) 두 제시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제시문의 핵심 개념인 ‘의무 투표제’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 대상인 문제의 성격과 취지 등에 관해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주제 통합적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

<문항 2>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논증적인 제시문 (다)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가)와 (나) 두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파악한 이후에 (가)의 ‘의무 투표제’의 도입을 옹호하고 (나)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도입을 반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의 핵심 주장인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간섭하려고 할 때, ‘본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사회가 간섭하면 더 큰 해악을 빚을 위험이 있을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인 ‘의무 투표제’와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사례에 적용하여 각각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논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서술된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 능력, 그리고 (다)에서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할 논거를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논증 구성능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사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문장 구성력 및 표현력이 필요하다.

## 출처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II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72-79	제시문(가)	x
국어 II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195-201	제시문(나)	x
고전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109-112	제시문(다)	x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채점기준표(인문계열 B형)**

문항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항목별	문항 소계	총점
1번 소문항	분석 및 이해력	공통점	70	200	600
		차이점	70		
	표현력		30		
	정서법		30		
2번 대문항	이해력(요약)		100	400	
	비판적 사고력	옹호	100		
		반박	100		
	구성력		40		
	표현력		30		
	정서법		30		

## 2018학년도 세종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 답안 예시(인문계열 B형)

1. 제시문 (가)의 '의무 투표제'와 (나)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0점, 400~500자)

의무 투표제는 투표 불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비인간적 행위를 처벌하자는 법이다.

의무 투표제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모두 개인에 대한 충고나 설득, 또는 비난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을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법제화에 대한 견해차가 커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의무 투표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표 참여 의무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인간의 양심 즉 도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전자가 제도를 법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도덕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 제시문 (다)의 주장을 요약하고, (다)의 입장에서 '의무 투표제'를 옹호하고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을 반박하시오. (400점, 1,100~1,200자)

제시문 (다)는 개인의 자유는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사회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회가 책임을 물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시문 (가)의 의무 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다. 투표는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민주적 절차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며, 하지 않았을 때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투표율이 낮아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어 대의민주주의의 존립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하락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투표 참여를 개인에게 맡겨두기보다는 사회가 간섭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법으로 투표 참여를 강제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의무 투표제의 도입은 바람직해 보인다.

제시문 (나)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과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이른바 인간성을 저버린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심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그로 인해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가 그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법으로 개인의 양심과 도덕을 강제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 법적 강제력을 도입하게 되면 개개인의 도덕의식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으로 양심을 강제하는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무 투표제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모두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를 법적 강제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자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양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입여부가 달라진다. 제도의 문제는 법의 보완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심의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필요하나 착한 사마리안 인 법은 필요치 않다.